

이 報告書를 國土統一院 74年度  
研究用役의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4. 11.



研究責任者：李 旺 世

國際問題研究所  
研究委員

11-10-19

## 目 次

1. 戰後國際情勢의 發展趨勢와 韓半島問題 .....	3
가. 東西冷戰과 6.25 .....	3
나. 國際緊張緩和와 南北對話 .....	13
다. 새로운 緊張의 殆動과 對話의 中斷 .....	19
라. UN을 通해 본 韓半島問題 認識의 變遷過程 .....	23
2. 今後 韓國統一의 國際的 與件의 發展 趨勢 .....	29
가. 國際情勢의 特徵的 動向 .....	29
(1) 國際安保情勢 .....	30
(2) 國際外交情勢 .....	34
(3) 國際經濟情勢 .....	37
나. 韓國統一에 作用할 國際的 諸變數要因 .....	41
3. 展 望 .....	44
※ 附錄 1. 朴 - 「포드」 共同聲明全文 .....	47
2. 「포드」 - 田中 共同聲明全文 .....	51
3. 「포드」 - 「브레즈네프」 共同聲明全文 .....	56



## 1. 戰後 國際情勢의 發展趨勢와 韓半島問題

가. 東西冷戰과 6.25

冷戰이라는 용어는 世界第2次大戰後 美·蘇를 中心으로 하는 2個 勢力의 對決이 격화하면서 부터 시작한 말이다.

이用語가 처음 사용된것은 美國評論家 「헨터·러프만」이 「뉴욕·헤럴드트리뷴」紙에 發表한 論文의 題名으로 使用하면서 부터이며 그이후 이말은 더욱 유명하게 되어 美·蘇關係의 對立을 意味하는 것으로 되었다.

말하자면 戰爭이외의 方法으로 敵對의 外交, 經濟, 軍事, 心理, 其他의 수단에 의하여 상대방에게 위협 혹은 混亂을 주는 政策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軍事援助, 經濟封鎖, 局地戰 혹은 心理戰 등은 冷戰의 한 方法으로 되어있는 것이다.

1945年 第2次 세계대戰이 聯合國의 勝利로 끝난후 1950年度까지 世界諸國은 一般적으로 2個의 陣營으로 分割되고 있었다. 一方의 陣營은 蘇聯을 中心으로한 共產主義諸國으로서 國家權力과 普遍主義的 혁명 「이데오로기」를 結合한 혁명주의 陣營이며 다른 一方의 陣營은 共產주의자에 對한 전복이나 소련의 정치적 支配로부터 自國을 방어하려는 諸國이 美國의 權力을 중심으로 聯合한 陣營이었다.

國際環境이 이와같이 實質적으로 兩分되고 對立이 日중 격화되자,

美國의 정책결정자들은 소련의 세계적화 비치는 팽창주의 정책에  
 대항할 수 있는 적절한 對抗力의 發動이 필요하다는 것을 確信하  
 느끼게 되었으며, 이와같은 認識은 第2次 세계대전이 거의 끝날 무  
 렴 美國政策決定의 最高段階에서 支配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美·蘇  
 의 평화와 협력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戰後의 국제정세가 명적으로 바뀌어지게 된 蘇聯의 배경은 국제정치  
 령에서 論하기 보다는 소련인과 美國人이라고 하는 하나의 民族史  
 的 觀點에서 다루는 것이 어느 程度에서는 이해하는데 더욱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소련은 15世紀以後 수많은 外部民族의 침  
 략으로 부터 國의 生存權을 보호하기 爲하여서는 獨立한 民族정  
 치하에서 국가의 自由를 지켜나가는 것이 必要하다는 것을 歷史的經  
 験으로부터 體驗하여 왔으며 美國은 獨立한 大陸에 자리잡아 外敵  
 의 침략에 대한 위협을 느끼지 않는 가운데 民主的인 自治, 個人主  
 義, 君主企業이라고 하는 社會體制의 선택이 가능했던 것이다.  
 蘇聯은 1480 「뵤안」大帝에 의하여 「타타루」인의 지배로 부  
 터 벗어났다. 그러나 1571년에는 「크리미아」의 「타타루」인이  
 「모스크바」를 占領하였다. 「타타루」인은 「로시아」인  
 80萬을 殺해하고 13萬名을 남치해갔다. 이와같은 事件은 소련  
 의 歷史를 通하여 數次 反復되었다. 극히 最近의 例로는 「히트  
 러」의 「로시아」侵入과 「로시아」인 殺戮이다.  
 16세기 이후 「로시아」의 生存에 대한 위협은 거의 大部分이  
 서방측으로 부터왔다. 1606년에는 「폴란드」軍이 侵入하여 「모

스코바」를 占領 소련은 6年間 「폴란드」의 지배하에 놓였었다. 1613年 「폴란드」의 직령으로 부터 해방되자 「미하일·로마노프」가 王位에 앉아 「로마노프」王朝가 탄생하였다. 그후 「스웨덴」人, 「폴란드」人, 「터키」人과의 오랜동안의 戰爭의 結果가 계속되 었다. 그리하여 「로시아」는 이러한 防衛的 戰爭期間을 經하여 영토의 확장을 계속하였다. 東은 드디어 「시베리아」에 隣은 羅 薩 帝 國에 臨는 「알트」海에 進出하였다. 그러나 1812年에는 「프랑스」人의 「로시아」에 侵入하여 「로시아」는 羸士化되고 「스코바」는 또다시 侵略者의 손에 陷락되었다.

20세기에 들어와서는 「로시아」는 千年前과 같은 침략을 계속 받아왔다. 1917年 「로시아」는 「실레시」皇帝의 政變을 經하여 「피테르」皇帝 이후 「로시아」가 舊帝의 皇帝의 대부분을 잃어버렸 다. 그다음 공격은 「러트버」의 支配하에 行하여졌다. 再次 「로시아」의 最良의 土地가 割리미가 되었다. 「나치」의 暴政의 次나 간후 700만명의 「로시아」人의 屠殺으로 말리었으나 「모스 크바」가 支配하는 領土는 一層擴大되었다. 이번에는 「베르린」西 例 100「마일」의 線까지의 「유령」의 大部分이 「로시아」의 지배하에 들어왔다. 말하자면 「로시아」는 隣國사이 實의 政變을 받고 被害를 受하면서도 그때 그때 그의 支配영역을 擴張하여 왔 던 것이다.

이에 反하여 英國은 처음부터 그들의 富強함과 安全을 目標하여 왔다. 蘇聯人이 失敗와 敗戰에 의하여 現在의 地位를 확보하여

문배 대하여 아직까지 미국인은 섹매와 散販의 경험없이 美國人의  
 生活方式의 우수성을 과시하면서 外界를 그들의 눈아래로 경시하여  
 왔던 것이다.

建國初期 美國은 安全한 高립주의 정책을 追來하여 「조지·워싱턴」  
 은 「諸外國에 對한 우리의 行動의 最安한 原則은 通商을 擴大할  
 데 있어 可能한限 政治的結合을 促하는 것에 있다」고 말하였으며  
 「18世紀後」大統領은 소위 「몬로」主義宣稱가운데 「유럽諸國  
 의 정치 體制는 米國의 정치체제와 근본적으로 相異하다」고 말하  
 였다. 「몬로」大統領이 만한 政治體制의 特色은 「勞力均衡」이  
 있으며 「서력균형」은 非美國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美國의 高립주의 정책은 그리 오래 계속될 수 없었다.  
 국제정치적 環境이 美國을 그날 安穩한 傳統的 高립주의 政策을  
 계속하도록 버려두지 않았던 것이다.

19世紀 末에 이르러 美國民은 國際政治에 적극적으로 介入하여  
 列強인가 이제까지 米國은 高립주의 政策을 繼續할 것인가 退却의  
 기묘에 왔다. 退却이라고는 하나 사실상 이러한 地帶의 餘地는  
 實際로 없었다고도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美國의 高립-  
 主義 政策은 可能하게 하였던 국제적 勞力關係가 붕괴되기 시작하였기 때문  
 이다. 이제까지는 世界全體에 影響을 미쳤던 「유럽」의 勞力均衡  
 이 英國에 의하여 유지되어 왔으며 이는 英仏海峽이 英國의 海軍  
 력의 지배하에 있고 英國의 安全保障이 확보되고 있는 環境에서 가  
 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19世紀末에 이르러 美, 日, 獨의 海軍力





1945년부터 1947년에 걸쳐 美國指導者들 및 政策에 민감한 독립이 유지될 수 있었을지 의문이다.

刀을 投入하지 않았었다면 西「유럽」의 무용이 達成되고 그들의 反약 1945年以後 美國이 本國에 對抗하기 爲해 「유럽」에 軍事 撤収 하였기 때문에 「유럽」은 힘의 空白狀態에 놓이게 되었다.

한 軍事刀을 갖지 못하였으니 더욱이 美軍의 戰後 빠른 부도로 불안한 소련의 영토 擴張의 對하여 당시 「유럽」은 이에 對抗할 능 력이 없었다. 「스타린」 爲하에 적면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리틀러」의 위협은 거부 불리할 西側諸國은 「히틀러」보다 더 것이다.

적으로 征服하여 「유럽」을 南北으로 兩分하는 線까지 到達하였던 「루마니아」, 「불가리아」, 「유마니아」까지 支配하여 東「유럽」을 군사 폭 100 「마일」 範圍 內, 「헝가리」, 「오스트리아」 東部, 까지 갈게 進出하였다. 蘇聯軍은 「폴란드」全境, 「베르린」西 側軍은 완강지대의 全境을 支配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西側에 2次大戰의 종료된 1945년부터 처음으로 시작하였다. 終戰時 인간의 세력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와같은 勢刀均衡은 이었으며 第2次大戰 이전의 「유럽」은 독일의 이와같은 역할로 20世紀에 들어서 「프시아」의 西進을 容해하였던 것은 독일 進을 저지하여 균형을 이루어왔던 것이다.

가 있어 이들 強國은 전통적으로 「프시아」의 巨大한 勢刀의 西 하고 있었다. 同緩衝地帶의 西側에는 독일, 「오스트리아」, 불란서

市民들은 미·소관계에 잠재하고 있는 기본개념으로서 協調로부터 封鎖에의 이행이 불가피하다고 느끼게 되었다. 1947年3月12日에 이르러 「트루만」大統領은 議회의 特別合同會議에서 演說을 行하였다. 이는 직어도 1917年4月2日 「윌슨」大統領이 議會에 對해 독일재국 정부에 對한 宣戰布告의 승인을 要求하였던 언설과 같이 歴史的으로 重疊한 것이었다. 同演說中 外交政策 部分을 要約하면 「美國外交政策의 主要目的의 하나는 미국이나 기타 다른 나라가 強制없는 生活樣式을 확립할 조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것은 독일이나 日本과의 戰爭을 행한 基本 목적이기도 하다. 우리는 自己의 복지와 生活方法을 他國에 강요하려는 國家로부터 승리하였던 것이다. 國家가 강제됨이 없이 평화로히 발전하는것을 保證하기 爲하여 美國의 UN의 설립에 指導的 役割을 하였다. UN의 목적은 모든 가맹국에게 향구적인 자유와 복지를 가능케 하는것이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自由로운 국민들의 전체정치의 침략에 對한 자유선도와 國家의 봉일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도와주지 않는다면 우리의 목적은 達成될 수 없을것이다. 直接 혹은 간접침략에 爲하여 自由로운 國民에게 전체정치가 強박되는 것은 國際平和의 基礎, 더나아가서는 美國의 安否를 위태롭게 하는 것인 것이다. 本人은 밖으로 부터의 무력적 압력에 저항하고있는 自由로운 國民을 원조하는것이 美國의 政策이어야 한다고 굳게 믿는다. 이언설은 후에 「트루만」선언으로 일컬어졌으며 이는 美國이 전통적인 고립주의를 포기하고 英國에 대신하여 세계의 곳곳에 「美國

이것이다. 한편 「아시아」에 있어서는 1949年 中共이 중국본토를 제압하여 國民黨을 台灣으로 몰아내고 北京에 中共政權을 수립하였다. 이는 勢刀拔振의 王刀을 「유럽」에 두고 俄後勢刀 凱旋성과정에서

는 國際的態勢위에 嚴重 조직화된 軍事의 性格을 강화하게 되었다. 1949年以來에 이르러서는 美·蘇의 對俄關係는 확대되고 있다. 主要 동맹국의 武器와 軍事機械을 제공하기 시작하였다. 이 背景은 1949年의 상호방위원조條約이 있으며 이에 의하여 미국은 왔다. 「유럽」을 中心으로한 集團安插體制을 지노라게 된 이 문제의 말리드는 것을 회피하여야했던 歷史的 政策은 중기부를 적고 말 條約을 비준하였으며 이 결과 美國이 「유럽」에 있어서는 軍事同盟 軍防衛를 조직화하는 것이었다. 1949年 7月 美上院은 北大西洋 「베르딘」 條約에 對한 美國의 同意은 西「유럽」의 集團的 軍

수있던 것이다. 1948年에 일어났던 「제코」의 공산화 「쿠에타」와 「베르딘」 條約으로 인하여 바야흐로 冷戰은 事實上 新전포고 宣告여진 공공인 條約으로 變換되어 있으며 「베르딘」 條約은 對俄의 大機關 있다고 할

의 平和」를 보급시키려는 정책의 제창이었던 것이다. 「트루만」, 「대統領」의 연설절과 「그리스」, 「터키」에 對한 원조뿐 만 아니라 「유럽」의 북동계회파 「엘베」강에서 부터 韓半島에 이르기 까지 「로시아」帝國에 對한 공해정책이 취해지게 되었으며 冷戰은 本格化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東歐諸國을 單期間內에 점령하여 버리고 「아시아」에 있어서는 中共이 中國大陸의 「헤게모니」를 잡을때 까지 기다리려한 소련의 戰略을 成功시킨 結果가 된것이다.

소련은 「베르린」봉쇄가 실패로 돌아가고 美國을 비롯한 西方諸國의 對蘇 對決 決意가 너무나 強烈하게 되자 서서히 勢力擴張의 主要를 「아시아」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中共이 中國大陸을 장악하고 있었고 대부분의 「아시아」신생국가가 독립국으로서의 정형이 不足하며 安定된 政權도 存在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산혁명의 잠재적 온상이라고 평가하였다. 게다가 대부분의 國家가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기 때문에 西歐式自由民主主義의 前途는 암담하였으며 「라틴아메리카」, 「버마」, 「인도네시아」, 인저만드, 「필리핀」등지에서는 旧秩序에 對抗하는 人民蜂起가 일어나기 시작하여 소련으로 하여금 「유럽」에서의 후퇴를 보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게 되었다.

1948年9月 北韓에 北端政權이 수립된데 이어 中共이 中國大陸을 석권하자 소련의 對 「아시아」赤化정책은 자극화되기 시작하였다. 소련의 「아시아」進出의 궁극적목적은 日本에 對한 影響 행사였으나 이러한 目的을 達成하기 爲하여 韓半島全體를 장악하는것이 절대적 조건이라고 소련은 判斷하고 있었다. 그반면 美國은 이상할 정도로 한국의 戰略的 重要性을 認定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駐韓美軍經費에 구애된 나머지 美軍撤退問題를 긍정적으로 받아드리지 1949年6월까지 韓國으로부터 美軍을 完全撤収시켰던 것이

다.

1950年1月 「애치슨」美國務長官은 「워싱턴」의 「내쇼날·프레스클럽」에서의 「아시아의 危機」라는 主題下의 연설을 통해 「美國의 極東防衛線은 아류산列島로 부터 日本 本州를 거쳐 琉球에 이어진다」는 것을 명백히하여 美國이 韓國을 극동방위선 상에서 제외하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하였으며 그후 1週日이 지나서는 美下院本會議가 政府가 제출한 1950會計年度 對韓軍援法案을 부결시키는 한편 1950年5月3日에는 美議회의 有名한 실력자인 人사인이었던 「코나리」上院外交分科委員長이 東京에서의 記者会見을 追하여 「日本—沖繩—필리핀을 연결하는 防衛線은 美上院에서 절대 필요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美政府國의 對韓消極政策을 적극적으로 지지 하였다.

「애치슨」長官의 発言이나 「코나리」委員長의 발언은 모두 美合同參謀本部的 비밀연구에 입각한 것이었다. 日本部는 蘇聯과의 大戰爭이 발발할 경우 美國의 방위에 있어서 韓半島가 戰略적으로 重要하지 않다는 結論을 반복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結論은 美軍事當局이 次期의 戰爭은 第3次戰으로서 核戰爭이 될 것으로 想定하고 局地戰이나 步兵兵刀의 役割을 지나치게 경시한데서 나온 것이었다.

韓半島에 내려진 결론은 1948年 12月 소련軍의 北韓徵收로 인하여 더욱 조장되어 1949年6月까지 美軍을 한국에서 철수시킨다는 결정에 기여하게되었던 것이다.

美國의 對韓消極政策은 소련이나 北傀로 하여금 南侵의욕을 더욱  
고취시켰으며 드디어 1950年 6月 25日 北傀軍의 全面南侵으로 발  
전되어 3년간 피비린내나는 전쟁의 소용돌이로 한반도를 몰아넣고  
말았다.

6.25의 비극은 이와같이 東西冷戰의 소산이 있으며 수백만 한민  
족의 희생은 동서 冷戰의 제물이었던 것이다. 한민족의 운명은  
항상 強大國에 의하여 지배되고 결정되어 1953年 우리의 의사와  
는 반하여 휴전이 成立되었으나 그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南北國의  
敵對關係는 풀릴줄 모르고 계속되어 왔던 것이다.

#### 나. 國際緊張緩和와 南北對話

1972年 7月 4日 南北韓은 韓半島에서의 緊張緩和와 自主的 平  
和統一을 목표로한 7條項의 共同聲明을 발표하였다. 이로서 休戰  
後 20餘年間 상호난립되어 對立, 抗争, 憎惡을 계속하여오던 韓半島  
에는 對話의 문이 열리게 되었으며 상호 도발을 억제하고 武力衝  
突을 방지하여 韓民族의 영원한 統一을 평화적으로 실현하려는 공  
동노력의 第1步를 내디뎠던 것이다.

1953年 休戰後 끊임없이 戰爭의 不安과 黑暗속에서 언제 통일  
의 悲願이 達成될 것인가 하는 초조감 쪽은 絶望感에 쌓여있던 우리민  
族에게는 이 歷史的 南北共同聲明은 통일에 대한 하나의 희망이요  
기쁨이 아닐 수 없었으며 한편으로는 情勢의 급변에 어리둥질 하  
기도 했던 것이다.

또한 美國을 비롯한 우리의 友邦諸國도 台灣 海峽과 마찬가지로 極東에 있어서의 國際政治나 軍事上 火山地帶를 이루고 있던 韓半島에 긴장완화와 安定的 平和에의 希望과 기대가 보이기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하였던 것이다.

이와같이 4半世紀만에 이루어진 南北對話의 背景을 國際政治面에서 살펴보면 우선 東西解氷과 國際情勢의 多元化라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앞에서도 論及한바와 같이 戰後의 國際政治의 構造는 東西冷戰體制 下에서의 2極構造의 세계였다. 다시 말하면 東西兩陣營의 對立이라고하는 構造였던 것이다.

즉 美國을 極으로 하는 自由主義陣營과 소련을 極으로 하는 社會主義陣營이 서로 對立하면서 戰後의 國際政治를 움직여온 2極構造의 세계였던 것이다. 이러한 構造가 戰후의 국제정치를 지배하여 왔으나 이러한 形態는 1960年代에 들어서 특히 「큐바」 急機事態以來 점점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社會主義陣營 안에서는 中.蘇紛爭에 의하여 진영내의 분열이 일기시작 하였으며 自由陣營 안에서는 「프랑스」가 美國에 저항하고 도전하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양진영공히 견고하게 단결된 상태에서부터 분열하는 현상이 생기게 되었으며 美國과 소련간에는 對立的共存關係가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그렇다면 2極構造의 세계 내지는 양극구조의 세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간단히 말하여 敵과 友邦의 區別이 매우



확실히 區別되는 세계이다. 自主主義陣營에게는 사회주의 진영이 적이며 사회주의진영 에게는 자유주의진영이 적임과 同時に 자기 진영에 속하여있는 국가는 모두 友邦인것이다. 이러한 構造下에서 各國이 제일먼저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行動의 基準은 陣營의 團結이라고 하는 것이며 이를 爲하어서는 各國의 利益보다는 진영 전체의 이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했던것이다.

1960年代 後半期에 접어들면서 미국과 소련은 이제까지 그들이 遂行하여온 세계적責任을 더이상 獨目的으로 담당할 능력이 상실되기 시작하였다. 소·중국의 분쟁으로인한 공산권의 분열 歐洲 日本의 경제적 大國化로 인한 자유진영의 분열이 바로 그것인 것이다. 그리하여 세계의 정치판도는 이제까지의 양극체제로부터 정치적으로는 미·중·소의 3極體制, 經濟적으로는 美·中·蘇·歐洲·日本의 5極體制, 軍事的으로는 아직까지 원동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美·蘇兩極體制 등으로 多極化 내지는 多元化的의 方向으로 변질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多極化 時代의 特徵은 양극체제와는 달리 그國家의 행동 기준이 自國利益우선이하는 점이다. 美國과 소련은 자국의 이해관계 여하에 따라서는 敵도 될 수 있고 友邦도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日本과 美國도 마찬가지로 結論이 나을 수 있게끔 된 것이다.

이와같은 國際情勢의 大潮流를 背景으로하여 美國은 1969年 紛爭의 大國不干與와 當事的 해결을 원칙으로 하되 힘의균형만은 계속

지원하겠다는 「닉슨·독트린」을 발표하고 「아시아」인의 安全保障은 第1次的으로 「아시아」인 自身이 하여야 한다는 점을 밝혔다.

또한 1971년에는 이제까지 對中共封鎖라고 하는 中國政策을 180度 轉換하였고 甲共도 이를 받아들여 72年 2月의 美·中共首腦公談에 의하여 平和共存이 合意되었다고도 불수있게 되었다. 그에 이어서 72年 5月에 있었던 美·蘇首腦公談에서도 平和共存 原則이 確신되고 국제긴장완화를 위한 양국간의 협조가 합의되었다.

美國의 이와 같은 國際緊緩和政策에 의한 對中·對蘇和解는 韓半島에 다음과 같은 影響을 가져왔다.

첫째로는 南北韓 分斷의 固定化이다.

美·日·中·蘇等 韓半島周邊 強大國들은 韓半島問題를 以하여 相互關係를 악화시키거나 緊張을 造成키를 願치 않고 있으며 이와같은 強대國의 의도는 自然的으로 現狀을 認定하여 分斷을 固定化시킨 방향위에서 한반도 어나아서는 極限의 壓力均衡을 維持해 나가려는 世界各國의 分斷國變方針과 外交關係를 同時에 守護하려는 方向으로 나오게 될것이다. 東西獨은 물론이고 南北越南 나아가서는 南北韓과 同時에 外交關係를 樹立하는 國家가 점차 增加 되고 있는것이 바로 이러한 경향인 것이다.

세계로는 U·N等 國際機構에 分斷國 變方針이 同時에 加入하는 경향이다. 이는 또한 世界여러나라가 同時에 加入토록 壓力을 加하는 一面에서도 나오게 될것이다. 우리가 6.23宣言을 發表하여

UN等 國際機構에 北傀와 同時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은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셋째로는 分斷國問題가 地域內部問題化 내지는 當事國問題化 경향이다. 東西冷戰時代에는 分斷國問題가 冷戰의 「심볼」로서 UN을 비롯한 國際政治舞臺에서 항상 各광을 받아왔다. 그러나 和解時代에 있어서는 分斷國問題는 그야말로 시끄럽고 귀찮은 問題가 되고 말았다. 가능하다면 分斷國問題는 문제화 하지 않고 當事國들이 眞正을 인정하는 方向에서 對話를 통해서 해결하기를 누구나가 바라고 있는 것이다. 第28次 UN總會에서 韓國問題를 裁決없이 南北對話의 권고형식의 강제안 채택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던것도 이러한 배경에서 연유된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편 南北韓 當時國으로 보아서도 韓國側에게는 이제 더이상 冷戰時代에 世界反共戰線에서 反共의 尖兵으로서의 役割을 계속할 수 있는 名分이 없어지게 되었다. 冷戰時代에 있어서는 美國을 비롯한 自由陣營國家들이 韓國을 共產陣營의 위협에 展示한 「쇼.윈도」로서 保護해 왔다. 이때 韓國은 自身의 國營과 경제건설을 병진적 保護層에 떠맡길수 있었다. 말하자면 依存의국방, 依存의 경제건설이 가능했고 그로부터 韓國民은 한없이 安穩함을 滿喫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問題가 달라졌다. 우리의 병진적 保護層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이다. 「닉슨, 독트린」의 전개, 美·中, 美·蘇의 接近, 日本의 共產國接近, 參戰 16個國의 北傀承認의 增加 이모든것이 韓

國에게는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세계에서는 오히려 當然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냉전적 保護壁의 붕괴 그것은 依存國防, 依存經濟의 安穩한 時代가 끝났음을 意味하는 것이었다. 의존이 不可能하게 됐다는것은 民主와 獨立이 強硬되고 있다는 말이다. . . 民主와 獨立은 바로 和解時代가 韓國에게 가져다준 선물이기도 한 것이다.

또한편으로 北傀 側으로 보아서는 人民經濟 7 個年計劃이 10 年만에 겨우 達成되기는 했으나 特히 國民生活와 直結되어있는 輕工業은 質, 量모두 크게 뒤떨어지고 이에 따라 國民들에게 約束한 豊고 사치스러운 生活은 더욱 達成하기 어렵게 되었던 것이다. 그런반면 韓國側의 경제건설은 날이 갈수록 눈부서게 발전하여 國民生活面에서의 南北격차는 더욱더 擴大되었다. 中共의 UN 加入에 따라 美國의 對北傀封鎖政策이 어느程度 완화되었다고는 하나 美, 中共, 蘇 和解에 依하여 北傀의 戰爭挑發的 強硬態度는 더이상 받아들여지지 않게된 것이다. 게다가 越盟에 對한 超大國 恫경에 의한 武力封鎖와 平和會談의 強硬은 北傀에게는 커다란 충격이 아닐 수 없었으며 이에 따라 北傀도 國際的인 긴장완화의 潮流에 따라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北傀의 一貫된 對南赤化의 야욕자체가 없어진것은 아니었음은 두말할 必要도 없는것이다.

여하튼間 南北雙方은 7 月 4 日을 기하여 傀儡라 부르지 않게 되었으며 美國도 北傀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라 호칭하는 한편 中共은 南北共同聲明을 報道하는 記事 가운데 韓國을 「兩朝鮮

최근의 國際情勢는 71年展 美國과 中共, 日本과 中共이 和聲한 데서 부터 나왔던 緊張緩和趨勢는 73年 10月의 甲東戰을 前後해서 일기 시작할 衝擊波로 해서 停滯된 채 도리어 새로운 緊張을 殆動해 가고 있는 狀況이라고 規定할수 있는 것이다.

國際情勢의 圖面에서 南北對話의 中斷과 南北間 새로운 緊張의 變化의 고있는 背景을 찾아보기 爲해서 먼저 最近國際情勢의 特徵부터 살펴 보겠다.

對話의 斷絶을 強硬히 反對하고 나선데 그 對內의인 背景이 있다고 려성이 增大되고 있는 反面 軍部를 中心으로 한 北盟社의 一腳에서 南北間의 變遷한 人事交遊로 北盟社에 自由의 움직임을 보이려는 南赤化假說이 韓國民의 國際觀 變容경신으로 主로 돌아가게 되고 一方에 7:4共同聲明放棄는 當初 그들이 노렸던 對話를 통한 對對話中斷으로 對話開始 24時間에 對해 무너지고 말았다. 北盟의 4半世紀만에 모처럼 開始되었던 南北對話는 北盟의 一方의인 다. 새로운 緊張의 殆動과 對話의 中斷

그러나 이러한 움직임이 日王平和統一의 實기적인 發展이기는 했으나 이것이 民族의 日亮에 依한 內部發生的인 것이 아니고 外部로부터 強硬된 形態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아직도 平和統一의 實은 멀고도 遠한것임은 누구나가가 感知할 수 있는 것이었다.

政府」라고 부르거나 지 되었던 것이다.

다시말해서 政治, 軍事的側面에서 볼때 國際的 緊張緩和 趨勢의  
 바탕을 이루고있는 強大國間의 和解는 國際懸案을 협상으로 해결하  
 려는 이른바 協商主義를 定着시키기는 했으나 反面 大國間의 흥정  
 풍조에 對해 反撥하는 中小諸國의 저항을 물러이르켰으며 상호 군  
 비확장을 止揚하려는 強大國의 合意는 限定된 수량 안에서나마  
 武器를 精銳化하고 變性能化 하려는 새로운 側面의 軍備競爭을 몰  
 아왔던 것이다. 또한 東西 陣營間의 和解는 同盟意識을 弱화시켜  
 國際위기에 對한 集團的管理能力을 無力化 시켜 놓았고 強大國들에  
 의한 局地紛爭의 조기 해소 노력은 오히려 지역당사국의 성급한 군  
 사수단동원풍조를 유발시켜 놓았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先進國들의 高度成長維持政策은 世界到處에서 後進中, 小  
 國들을 剝奪하여 南北問題를 尖銳化시켰고 高度成長의 推進을 爲한  
 資源의 開發과 需要의 증가는 석유위기에서 볼 수 있는바와같은  
 資源 「내쇼널리즘」을 크게 剝奪하고 말았다. 무엇보다 大國間의  
 和解努力은 緊張완화의 추세를 몰아왔고 이것은 아직 國際外交의  
 基調로 되고있기는 하나 反面 國際安休的 側面에서는 갖가지 새  
 모은 緊張요인이 고개를 들고있고 國際經濟面에서도 恐慌의 기미  
 를 보이고있는등 오히려 全般的으로는 새로운 緊張배지는 混亂이  
 造成되어가고있는 狀況이라 하겠다.

이러한 情勢는 北愧테으로 볼때는 지금의 國際情勢가 여러가지로  
 그들에게 有利하고 韓國테에 不利하게 돌아간다고 判斷할 수 있는  
 根拠를 提供하게 되었다.

우선 韓國의 安保面에서 美國의 對中共非敵性化政策으로 因하여 이  
계까지의 美國의 對韓國 軍事支援의 理論的, 根柢를 招來케 했다. 다시  
말해서 美·蘇의 平和共存에 지는 協商主義에로의 轉換, 日本의 對中  
共 國交樹立等 極東에서의 情勢變化는 戰後 極端的인 冷戰構造下에  
서 對共產國封鎖政策의 一環으로 이루어져 왔던 美國의 對韓軍事支援  
의 理論的根柢를 상실케 하였다. 이 때까지 美國의 對韓軍事支援의  
이론적 근거나 名分은 한국이 東西兩大陣營의 接戰場이며 冷戰의  
前哨地라는點, 對韓軍事支援은 對共產國封鎖라는 美國의 극동정책과  
一致하며 共同의 위협에 대처한다는 點이었다.

美國의 對韓支援의 이론적 근거가 상실된것은 韓美間의 특수한  
현행관계가 今後로는 점차 一般的國家關係로 轉落하는 한편 反共을  
國是로 했던 韓國의 氛圍가 不安하게 되고있는 상황을 反映되고있  
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韓·美·日 3角關係에서 보던 美·日安保條約-韓·美相互防  
衛條約-韓·日經濟協力에 依한 日本의 間接的 對韓國軍事支援의 形  
態로 유지되어온 소위 間方 3角安保關係가 龜裂을 招來하게 되  
었다는 點이다. 이 때까지 特別히 日本의 對韓軍事支援은 美·日安保條  
約에 의거 駐日美軍에게 基地와 시설을 提供하므로써 美軍의 對韓  
軍事支援을 間接的으로 지원하며 對韓경제침력을 통하여 鋸物銃, 延  
銅, 製鉄, 特殊銅, 重機等 軍수산업의 기초가 되는 工場建設에 資本  
과 기술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던것이다.

이와같이 國際情勢가 多元化되고 流動化되어 韓國의 安保維持要因

이 不安하게 되어감에 따라 北僞는 이를 最大限으로 이용하여 韓半島에 不安을 造成, 對南武力赤化야욕을 노골화시켰으며 對話도 一方的으로 파기시킨 하나의 원인이 된 것이다.

이러한 安依的 局面은 이제까지 韓半島에 있어서의 陣營間 軍事對決 形態를 南北韓間의 單獨的軍事對決 狀況으로 轉換시키고 있으며 政治, 軍事, 經濟的 南北競爭은 더욱 加熱化시키게 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韓半島에는 「아랍」과 「이스라엘」형의 軍事的緊張이 尙상 存在하고 있으며 強大國의 協同에 의한 분쟁해결 강요와 紛爭의 現위치 종결 이라는 一般的 분쟁해결 傾向은 北僞측에게 기습에 의한 南侵의 좋은 구실을 주고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外交的 局面에서 北僞가 對話를 파기한 根拠를 찾아본다면 첫째로 들수있는 것이 中共과 蘇聯의 對韓國關係이다. 韓國이 6.23 宣稱을 發表하여 共產國家에 對한 門戶를 開放하고 中共과 蘇聯에 對한 關係改善에 積極性을 보이자 北僞는 이를 저지시키기 위한 口實을 마련하기 위하여 南北間의 緊張을 高揚시키고 對話를 中斷시킬 必要性을 느끼게 되었던 것이다.

둘째로는 中共의 第3世勞에 對한 영향력 승대에 따라 北僞는 中共을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第3勞刀團에 파고들어 이들과의 關係를 긴밀히 할 수 있었고 상대적으로 한국을 국제적으로 고립시킬 수 있는 좋은 이점이 마련 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셋째로는 과거 우리의 友邦들이 점차 南北等距離外交를 推進하여



韓國問題가 UN에서 討議되어야 온 과정을 보면 이는 그레그에 당

라·UN을 通해 온 韓半島問題 認識의 變遷過程

北領을 承認하게 되자 UN等 國際무대에서 北領의 地位가 그만큼  
 커졌으며 특히 韓國國의 2次 支援努力인 美國과 日本이 점차 北  
 領과의 關係를 개선하려고 시도하고 있기 때문에 對語를 계속하여  
 南北間의 關係가 完化되고 세계각국이 2개의 韓國國家를 維持하여  
 分斷을 固定化 하게 된다면 그들의 統化統一은 그만큼 어렵게 된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南北對語는 結局 美·中共接近이라는 趨向적인 世界情勢變化에 南  
 北韓이 피동적으로 이에 적응하기 爲한 하나의 方法을 찾기 위하여  
 나온 것이었다. 이것이 民族의 目標에 의하여 國際情勢에는 影響이  
 없이 曄으로 우리 민족을 통일시키려는 崇高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면 이와같이 당시 國際에 應答되지 않는 事實이었다. 또한 南北對語  
 가 20餘年間 未단되어 終히 實現적인 「아베오르키」와 休戰 및  
 生活樣式이 各各의 定着하고 있으며 軍事的, 政治的, 思想的  
 으로 對立되어 왔다는 點을 감안하여 이를 극복, 조정하고 存在시킬  
 수 있는 對策準備가 없이 시작되었다는대서도 對語가 中斷될 可다  
 란 原因이 있다. 그 緣은 國際情勢變化를 攄묘하게 形容하여  
 論리하면 曄상으로 나오고 유미하면 武力으로 攻擊한다는 共產黨  
 特유의 進路를 民族統一이라는 巨大한 民族的 課業에 까지 이를  
 通用하고 있기 때문에 結局 對語의 再開는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이다.

時의 國際政治的 現狀을 그대로 反映해 주고있다. 그렇기 때문에 韓半島問題가 UN에서 討議되고 決議文이 채택된 과정과 그 決議文의 內容을 살펴본다면 그때 그때의 國際情勢의 特徵과 韓半島에서 일어났던 政治狀況을 知할 수 있는 것이다.

韓國問題에 對해 決議案을 採択한것은 1947年이었다. 當時 韓國問題가 UN에 移管된것은 '45年 12月 「모스크바」 3相會議決定에 의거 韓國의 統一民主臨時政府樹立 問題를 해결하기 위해 양차에 걸쳐 召集된 美·蘇共同委員會가 流離하였기 때문에 美國政府가 불가피하게 취한 조치였다. 47年 UN總會가 UN감시하에 總選을 決議했을때 蘇聯은 이를 거부하고 北僞는 UN韓委의 入國을 거절했다. 蘇聯과 北僞가 UN감시하의 總選을 거부하자 UN감시하의 總選은 南韓에서만 실시되었고 48年 8月 大韓民國政府가 北韓에서 같은해 9月 소위 「朝鮮人民共和國政府」가 수립되었다. 이에 따라 1948年 12月 12日 UN총회는 大韓民國을 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合法政府임을 宣稱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南北韓은 分斷이 하나의 現實的事實이 되고 「人民共和國」수립후 蘇聯과 北僞는 兩僞의 方針을 굳히고 戰爭準備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1950年 共產黨의 南侵으로 6.25戰爭이 발발하자 UN安理會는 共產黨의 공격을 南侵으로 규정하고 38線以北으로 撤收할것을 요구하였다. 兇산축이 이를 묵살하자 6月 27日 UN安理會는 韓國에 對한 군사원조를 결의했는데 美國大統領은 이 결의에 의거 美軍에 對해 韓國戰參加를 命令하게 되었다. 7月 7日 UN安理會는 UN

포사령부의 설치를 결의했다. 50年11月 中共軍이 大規模로 韓國 戰線에 介入함으로써 韓國전쟁은 새로운 양상을 띠우게 되었다. 51年2月1日 UN총회는 中共을 침략자로 규정하는 결의를 채택하고 5月18日 中共과 北韓에 戰略物資 수출을 금지하는 결의를 채택했다.

韓國戰爭에 있어 北韓나 中共은 UN의 결의를 수락하지는커녕 UN결의에 對 反거하여 兇惡한 UN軍을 상대로 치열한 交戰을 벌였기 때문에, 北韓나 中共은 UN軍 및 그 自体에 對해서 兇惡한 制裁政策을 쓰게되었다. 그뿐더러 UN軍은 侵略者인 北韓및 中共을 상대로 交戰하고 또 休戰協商을 벌였기 때문에 흡사 一種의 交戰團體 처럼 되어버렸다.

53年7月23日 休戰協定이 成립된 후 韓國통일 문제는 一但 휴전협정에 따른 政治會談으로 移管되었다. 그러나 54年 4~6월에 「제네바」에서 열린 政治會談이 아무런 結果를 못보고 流産에 直面하자 6月15日 「제네바」會談에서 韓國參戰16個國은 共同聲明을 발표하여 韓國問題討議終結과 「UN감시下 총선실시에 의한 통일」을 선언하게 되었다. 이와같이해서 韓國문제는 또다시 UN으로 移管되었다. 休戰凍結狀況이 굳어져가는 가운데 UN총회는 해마다 韓國문제를 上程해 놓고 東西간에 치열한 冷戰을 벌렸다. UN總會는 UN감시하 總選으로 韓國統一을 이룩한다는 決議를 每年 되풀이 채택했지만 共產國의 거부로 인해 아무런 實効性도 거둘수 없었다. 韓國問題의 UN上程 및 討議에 있어서 61年4月12日

UN政治委員는 北僞代表의 條件附出席을 승인하는 決議를 채택해 약간의 변화를 일으켰다. 그러나 北僞가 UN의 權威와 權能을 認定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아무런 의의가 없었다.

54年「제네바」會談 결일후 60年代 후반까지 UN에 있어서 韓國問題는 東西冷戰의 道具로 完全히 전략하고 말았다. 韓國問題의 上程与否를 둘러싸고 한국문제를 討議하는데 있어서 北僞代表參席의 可否를 둘러싸고 또 UN감시하 선거에 의한 統一이라는 결의안의 채택여부를 둘러싸고 UN政治委員會에서도 UN 總會에서도 自由, 共產兩大陣營間에 激甚한 論爭이 벌어졌고 그結果는 늘 西方내의 승리로 돌아갔다.

그후 AA 「블럭」에 속하는 會員國數의 증가와 中共의 UN加入을 支持하는 국가들의 수효의 증가는 UN에 있어서의 議席分布 狀況을 크게 變化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60年 末葉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한 世界情勢의 「脫冷戰化 경향」은 UN총회가 冷戰의 「잇슈」로 바뀌어진 한국문제를 아무런 实效性없이 연례행사 처럼 다루는데 대한 반성의 기운을 자아냈다.

이와같은 情勢의 變化는 한국문제의 上程을 UN政治委員의 자유재량에 맡기게 했다. 自動上程에서 自由裁量上程으로의 이행은 한국문제 취급을 冷戰의 「잇슈」에서 脫落시키려는 努力의 表現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中共의 UN進出 기운의 성숙때문에 西方내의 韓國問題의 上程審議에 있어서 守勢에 물리게 되었음을 暗示하는 것이었다.

南北間 對話의 開始와 7.4 共同聲明의 發表는 많은 UN 會員國으로 하여금 韓國問題를 보는 視角을 종전과 달라지게 하였다. 더군다나 分斷國家의 UN 同時加入 기운 造成에 발을 맞춘 韓國의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은 점차로 守勢에 물리고있고 西方陣營의 UN에서의 韓國問題取扱에 있어서 새로운 活路를 열어 놓아 주었다.

韓國問題의 脫冷戰的 轉趨경향 그리고 韓國의 南北韓同時加入主張 등은 南北對話의 지속을 그 現實的인 論理로 삼는 것이다. 北側은 南北同時加入論에 대해서, 즉각적인 拒否反應을 보이거나 南北對話를 一方的으로 中斷시켰다. 이어 「언커코」해체 및 駐韓UN軍의 철수를 골자로한 안을 제출하여 이를 채택케하려고 기도하였다. UN 同時加入을 주장하는 한국측 주장과 「언커코」해체 및 모든 外國軍의 철수를 주장하는 北側측은 UN 總회에서 평행하게 對立되었다. 그러던 것이 73年 11月 北京에서의 「키신저」-周恩來會談을 계기로 韓側은 韓半島에 UN 總회 政治委員會는 票決없는 타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한국한계에 처한 決議案을 採択하기에 이르렀다.

73年 11月 UN 政治委員會決議는 7.4 共同聲明을 높이 評價하고 南北對話의 進展에 기대를 걸며 「언커코」를 즉각 해체한다는 내용이였다. 이결의는 한국측 주장의 골자인 南北韓UN 同時加入案, 北側측主張인 外國軍撤収案을 共히 해체하면서 雙方이 받아들일 수 있는 最大公約數的인 要素를 간주려 놓은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이 決議는 韓國問題가 또다시 병전의 「잇슈」로 轉移되는 것을 막고 또 韓國問題의 궁극적인 해결은 南北當事者들의 協同에 맡겨 놓은 것이다.

## 2. 今後 韓國統一의 國際的 與件의 發展趨勢

### 가. 國際情勢의 特徵的 動向

最近의 國際情勢는 71년에 美國과 中共이 화해를 한테서 부터 시작되었던 國際的 緊張緩和趨勢가 73년 10월의 中東戰爭을 진 후해서 일기 시작한 충격파로 해서 停滯된 채 도리어 새로운 緊張을 태동해가고 있는 狀況이라고 규정지을수 있다.

即 政治, 軍事的 측면에서 볼때 國際的 緊張緩和趨勢의 바탕을 이루고 있는 強大國間의 화해는 國際懸案을 協商으로 해결하려는 이른바 協商主義를 定着시키기는 했으나 反面 大國의 「어깨넘어」式 흥정 풍조에 대해 반발하는 中小諸國 이른바 「第3世界」의 저항을 불러 일으켰으며 相互軍備擴張을 止양하려는 強大國의 합의는 한정된 수량안에서나마 武器를 정예화하고 고성능화하려는 새로운 軍備競爭을 유발했다. 또한 東西陣營間의 화해는 同盟意識을 약화시켜 國際危機에 대한 集團的 管理能力을 무력화시켜 놓았고 強大國들에 의한 局地紛爭의 조기 해소 努力은 오히려 地域當事의 조급한 軍事 手段 動員 風조를 발생시키고 있다.

뿐만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도 先進國들의 高度成長維持政策은 세계도처에서 後進中小國 들을 刺戟하여 南北問題를 정예화 시켰고 고도성장추진을 위한 資源의 개발과 수요의 급증가는 石油危機에서 불수있는 바와같은 資源「애서널리즘」을 크게 刺戟하고 받았다.

요컨대 강대국간의 화해노력은 緊張緩和의 추세를 낳고 이것이 아직 國際外交의 基調로 되고있기는 하지만 반면 國際安保의 측면

이에 対応하여 미국은 이미 美戰配備되어있는 ICBM를 新형으로  
 比해 낙후되어있는 공격능력 확보에 努力하고 있다.  
 역세를 풍아 SLBM의 長거리화 實驗에도 박차를 가하는 등 美國에  
 水艦發射誘導彈)의 實驗과 이동식 ICBM의 發射實驗에 성공한  
 뿐만 아니라 蘇聯은 지난 10월 射程 4,500 마일의 SLBM (潛  
 까지 이르렀다.

75년부터는 美國이 우려하는바 대로 MIRV를 美戰配備할 단계에  
 化의 성공함과 동시에 核彈頭의 발사 數量도 대폭 增加하였으며  
 即 去年은 去年들어 4회에 걸친 實驗을 통해 ICBM의 多彈頭  
 로 變화를 다루는 技術 變호으로 完全히 달바꿈했다.

환사키는되는 합의였지만 그후부터는 兩大國間의 變호의 核武器의  
 武器制限交渉의 第1段階協定을 체결함으로써 核武器를 主적으로 제  
 은」大統領이 「모스크바」를 방문했을때 SALT로 불리우는 戰略  
 실이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即 미국과 蘇聯은 72년 5월 「닉  
 美蘇 超強大國間의 軍事的 角逐戰이 다시 再열해지고 있다는 사  
 고개를 들고 있는 중대 시련기에 접어들고 있다.

하고 있기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現國際安保狀況은 건장이 다시  
 도처에서 증가되는 軍事的 手段에 의한 局地紛爭 해결공조가 대우  
 強大國間에서는 軍備와 勢力國競爭이 再열해가고 紛爭要因은

(1) 國際安保情勢

내지 混亂이 조성되어가고있는 상황이라 하겠다.  
 도 공황 기미를 보이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는 오히려 새로운 緊張  
 의서는 尙가지 새로운 緊張要因이 고개를 들고있고 國際經濟面에서



바꾸어 完全 多彈頭化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지난 10월에 적의 기습공격을 대피할수있는 ICBM의 機上發射 實驗에도 성공하고 있다. 또한 적의 방위망을 돌파하여 목표물에 도달할수 있는 최신무기 즉 MARV(機動再突入式個別目標誘導多彈頭미사일)로 불리우는 「트라이덴트」 SLBM을 1978년에 突戰配置할 예정으로 개발하고 있다. 이러한 미·소간의 치열한 核競争때문에 국제적인 최대 현안인 미·소간의 SALT 第2段階交渉은 不振한 상태에 놓여있다.

한편 美蘇間의 勢力圈競争도 그 규모에서나 対象地域에 있어서 擴大一路에 있으며 따라서 兩國間의 紛爭 잇슈는 확산되어 가고 있다. 즉 소련이 勢力圈 擴張을 위해 印度洋, 紅海, 「페르시아」灣 等地에 거점을 확보코자 努力하고 있는가하면 이에 대항하여 미국은 영국의 「스에즈」以東 철수 이후 방치해 두었던 이 지역에 第7艦隊의 일부를 파견하고 「디에고· 가르시아」를 전진기지로 확장하고 있다.

地中海에서도 이미 約 50隻의 함정을 상주시키고 있는 소련은 黑海에 있던 「스크로이」級 驅逐艦을 새로이 地中海로 진출시키는 등 海軍力 강화에 힘쓰는 한편 최근에는 회람의 NATO탈피를 지지하고 NATO 테두리 안에서 「키프러스」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방해하는등 내부문제까지 개입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地中海에 있는 第6艦隊를 증강하고, 中東問題 「키프러스」등에 대한 조정활동을 강화하는등 소련에 의한 침식을 저지하려고 努力하고 있으며 이러한 미·소의 각축 때문에 회람,

면저 中·蘇의 國際對峙狀況을 보면 소련은 2~3년전부터 戰列

선이 또한 國際安保情勢의 중대 위해 요인으로 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수에서 中·蘇對立이 더욱 심화, 확대되고 있다는 사

척에서 추출할 것이다.

다그 라는 이른바 先挑發, 倭協商式의 局地戰爭은 앞으로 세게도

의 有名無實化되고 있다. 따라서 먼저 도발하고 난 다음 協商한

라 UN의 국제안보유지 기등도 中小國家群의 突적인 襲擊앞에 커

그런데도 強大國들의 危機調整能力은 현저히 약화되고 있을뿐아니

여기에 첨가되고 있다.

래의 資源國과 消費國間의 乖離이라는 조하나의 심각한 紛爭要因이

이 일어나고 있는 가동할만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석유위기가 이

있다. 또한 인도의 核兵裝을 기점으로 中小國間에서는 核保有國爭

中小國家들의 무기구입 能力도 자원위기에 의해 비약적으로 증가되고

즉 최근 紛爭當事國의 軍사力層은 전반적으로 증강되고 자위보유

하제하는 重要要因으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약화되어가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며 또한 國際安保情勢을 불안

으로 발발하고 있다는 사실은 局地戰爭의 역지력이 날이 갈수록

第4次中東戰爭, 「키프러스」事態등 局地戰이 70년대에 들어 연례적

한편 71년의 인·파戰에서 부터 72년의 總盟大攻勢, 74년의

긴박감을 감동케 하고 있다.

요컨대 미·소간의 勢力圖, 競爭은 지중해, 중동, 서남아, 靑島에서

東, 「키프러스」등지에서의 紛爭은 熱度를 더해가고 있다.

트이기동지에서 NATO체제의 취약점이 露呈되고 있을뿐 아니라 中

를 방어체제로부터 공격체제로 전환하여 軍部國境 지역에 이미 IRBM을 집중배치하고 東北部와 中部國境地域에는 병력과 각종 군비를 집결강화하였으며 최근에는 국경지대에 ABM요격 미사일만 을 포진하였다.

이에대해 中共도 국경지역에의 병력증강, 무장민병의 강화 그리고 후방지역의 병력재편성 등 대대적인 臨戰態勢를 서두르고 있다. 또 중·소는 다같이 최근 국경주변에서 頻繁한 군사연습과 군사요새구 축을 강행하고 있다.

이러한 中·蘇의 움직임때문에 양국간에는 어느때 군사충돌이 일어날지 모를 위기狀況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또한 中·소간에는 세력권 競爭에서도 날카롭게 대립되어 있다. 즉 소련은 亞細亞集團安保構想으로 아시아에서 中共포위를 副策하고 있고 지난 10월 16일에는 廣州共產黨大會 예비회의를 개최하여 국 제공산주의운동에서 中共을 破門하기위한 廣州 및 世界共產黨大會의 정지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中共은 이른바 第3世界論을 定立하여 소련이 社會帝國主義化한 이상 사회주의 진영은 이제 存在하지 않는다는 論理 下에 對의, 理念을 포위하여 中小諸國과의 관계증진을 도모하기위한 第3世界外交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美國, 西歐, 日本등의 對해서 요컨대 中共과 蘇聯은 다시 融合하기 어려운 關係下에서 그 대 령의 무대가 汎世界的으로 확산되고 있다.

## (2) 國際外交情勢

國際安保情勢면에서 긴장요인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國際外交情勢면에서는 국제간장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강대국간의 外交勢力이 부각되고있다. 그러나 이러한 努力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紛爭要因의 속출때문에 緊張緩和趨勢를 定着化시키지 못한채 우선 自國利益부터 보장하려는 恠정 外交가 풍조화하고 있다.

이러한 恠정 外交풍조는 協力外交의 강화를 위하여 外交努力을 지속하고 있는 미·소간의 外交關係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미·소관계는 양국 공히 國際秩序를 실질적으로 左右할수도 있는 超強大國들이라는 특수한 입장때문에 超強大國으로서의 상호협력 불가피성과 또한 超強大國間의 勢力競爭에 따른 相互牽制必要性이라는 두가지의 상관관계속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즉 미·소는 協力不可避性이라는 측면에서는 72년 5월의 「닉슨」 訪蘇이후 미·소頂上會談이 연례적 행사로되어 「닉슨」의 급작스러운 退陣事變가 일어나자 양국은 예정에도 없었던 「우라지보스톡」 會談을 개최하기로 합의하는가 하면 이와같은 對話루트를 통하여 兩國은 中東戰爭과 같은 局地戰이 世界大戰으로 확대되는 사태를 저지하고 核擴散을 반대하는등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다. 따라서 相互協力이 필요한 국제현안의 처리는 신속하고 원활한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美蘇의 軍事的力關係를 左右하게될 SALT 第2段階交渉이 거듭되는 미·소頂上會談과 「키신저」의 거듭된 「모스크바」 訪問에도 불구하고 계속 난항하고 있는 것이다. 美國의 對蘇最惠國

보지 못하고 있는 등 역시 軍事問題에 관한 한 상호 양보를 거부  
 부터 우선적으로 감군하자고 주장하고 있어 東西裁軍交渉은 진전을  
 혹은 같은 比率로 감군하되 陝州에 주둔하고 있는 美軍과 소련軍  
 은 나라의 兵力을 동시에 감군하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반해 서방  
 있어서는 공산측이 同一數만큼씩 裁軍하되 中露「유령」에 있는 모  
 西裁軍은 진전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軍事的分野에

북 變萬의 政治・經濟分野에서의 접근노력으로 全歐安保會議나 東  
 안을 수락하고 있다.

바」에서 EC對 「코메콘」의 公式會談을 개회하자는 共産側의 제  
 서방측대로 EC의 對東歐經濟進出을 위해 오는 11월초 「모스크  
 間・情報交流」요구를 수락할 용의가 있음을 표명하고있는 서방측은  
 安保會議를 급속히 추진하기위하여 중대 반대에오던 서방측의 「人  
 도 積極化되고 있다. 共産側은 陝州를 現狀固定化시키기위함 全歐  
 이러한 미・소間의 外交내면의 파라 東西兩陣營間의 불안타개노력  
 殊한 協力外交의 배턴을 보이고 있다 하겠다.

요컨대 미・소는 동정과 賠償等에서도 임력하지 않을수 없는 특  
 소의 協力關係에는 영연한 限界가 있음을 들어내고 있다.  
 의 解決도 난항하고 장기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미・  
 사실은 相互牽制必要性的의 측면을 부각시켜주는 것이며 따라서 問題  
 소련의 기도를 저지, 穀物이 일기에 대량유출되는 사태를 막았다는  
 고 美國이 지난 10월 5일 320萬톤의 미국산 穀物을 수입하려던  
 이 받아들여지고서야 2년만에 겨우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되고 그리  
 待遇問題가 유배인에게 移民의 自由를 주자는 美國의 주장을 소련

하고 있다. 이 점에서 東西間의 不信任이 여전히 심각하다는 것을 알수있다.

이러한 가운데 東西各陣營에서는 내부판계를 再調整, 強化하려는 外交活動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西方面에서는 軍事安保 面에서 지난 6월의 大西洋宣言 謝印으로 美俄間 同盟防衛의 一體性을 確立하여 그동안의 不協和 危機를 일단 克服했지만 정치, 경제 측면에서는 美國의 西歐에 대한 指導的 영향력 확보 노력과 이에 對한 西歐側의 独自の 結束努力으로 보조물일치현상을 내고 있다.

이의 比해 共產側에서는 「바르샤바」 「코펜하겐」 體制의 體制 強化에 바차를 가하면서 歐州 및 世界共產黨大會의 추진을 통해 共產主義運動의 재단함을 모색하고 있다. 요컨대 西方面이 相對적으로 脆弱點을 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第3世界에서는 집단적인 挑戰勢力化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國際政治秩序가 강대국 중심으로 되어 있고 국제경제질서가 先進國 위주로 되어 있는데 대한 공동적 不安이 現狀打倒要求를 유발함으로써 매우된 것이다.

특히 60년대 이후 계속되어온 數的增加와 資源供給地로서의 比重上昇, 그리고 석유위기로 인해 各광물 供給을 確保한 中小國의 資源 「내셔널리즘」을 바탕으로 第3世界는 集團行動으로 先進工業國에 對면 도전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지난 4월의 UN資源 總會나 그후의 國際海洋法會議, 世界人口會議, 世界食糧會議 등에서 그 偉력을 發揮했다. 問題는 第3世界의 이러한 集團化 움직임이 今

73년 10월 中東戰爭이 끝났을 때 처음으로 석유위기는 아직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한 채 難航을 계속하고 있고 이때문에 國際通貨秩序나 自由貿易秩序를 위지한 국제경제질서는 亂調를 거듭하고 있으며 이런 속에서 國際的 「스태그·플레이션」은 날로 심화하여 各國은

(3) 國際經濟情勢

조건때문에 시련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가피하게 추궁되고 있지만 이것 또한 對內의 安定構築을 위 노력도 경제변화의 다른 대외적 양력 강화와 對內의 安定構築을 있다. 또한 自行策으로서 일관되고 있는 諸大各國의 국내체제강 시하는 경향이며 그리기때문에 國內保守勢力의 反響도 거세게 일고 對外路線 轉換을 조급하게 서두는 나머지 友邦國에의 信義는 도의 共國家들은 中·蘇·北虜 등 공산국가들과의 關係改善을 목적으로한 공동체치·노력의 混雜만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 가운데 傳統的 反 새로운 地域協力構想은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오히려 新情勢에 대한 이러한 扶況에 대처하기 위해 畿內諸國이 제의하고 있는 갖가지 難을 찾지 못한 채 불안단이 가중되고 있다. 적으로 전개됨으로써 이 지역에서는 激變期에 있어서의 集團安插基적인 진출노력, 그리고 日本의 強目的 영향력권 구축노력등이 복합 즉 美軍勢力이 이 지역에서 後退함에 따라 中공과 소련의 경제 諸地域諸國들은 새로운 정세에 對應함에 있어서 混雜을 빚고 있다. 이러한 瀾中에서 韓國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아시아·太平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파격성을 띄어가고 있다는 점이 국제정치사상 주목의 대상

모두 社會的 政治的 불안을 맞고 있는 狀況이다. 때문에 현재에  
 는 「포드」美大統額이 지역하와 같이 「深刻하고 混亂된 狀況」  
 하에서 資本主義 經濟體制가 위기에 봉착한 중대한 岐路에 서 있  
 는 狀況이다.

이를 具體的으로 살펴보면 國際通貨面에서는 석유가 인상 후 「오  
 일·탈러」가 產油國 側에 集積되고 이에 따른 國際流動性의 필박때  
 문에 동화질서는 混亂되고 있다. 즉 國際流動性 總 1,900 億탈러  
 가운데 「오일·탈러」로 集積된 額數는 800 億탈러에 達하며 80년도에는  
 무려 6,000 億탈러에 達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오일·탈러」의 正常的 邊流體制가 갖추어져 있기때문에 국  
 제 통화의 圓滑한 회전을 기대할수 있는 강대이다.

이로인해서 석유위기 이전부터 고질적인 국제 불안으로 되어온 金  
 의 地位問題나 換率制度의 안정화문제등에 대한 국제적 해결 노력은  
 後退하고 國際經濟秩序는 正常軌道에 물려놓는데 절대적 요건인 국  
 제 협력 마저도 세계각국 특히 先進國들의 대내 문제의 시급성과 각  
 국 상호간의 利害對立 때문에 기대하기 어려운 狀況이다.

또한 국제무역면에서도 石油輸入所 負擔의 大體增加로 인해 특히  
 貿易黑字國의 대부분이 赤字國으로 전락하여 今年도의 OECD 先進  
 24 國의 적자는 400 億탈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  
 때문에 先進諸國은 莫大한 貿易赤字에서 헤어나기위해 保護貿易主義  
 的 措施하에서 輸入規制措置와 自由産業保護措置등을 서슴치않고 있  
 다. 뿐만아니라 석유위기의 다른 모든 資源까지 經濟戰略의 동원  
 하는 資源武器化 경향이 資源「내셔널리즘」을 더욱 만연시켜 美國



까지 食糧을 무기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食糧問題는 이제 석유문제와 함께 세계 세계가 해결해야 할 難題로 부  
 각되면서 국제경제는 물론 국제경제를 움직이는 중요한 결정적인  
 수단의 하나로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움직임 속에서 중래  
 의 自由貿易秩序는 붕괴되고 오히려 貿易戰爭의 양상마저 나타나  
 고 있다.

國際經濟事情의 變化를 초래한 主觀인 석유문제는 해결하기 위한  
 努力은 다각적으로 추구되고 있지만 各國이 추구하는 해결방향이  
 相違되고 있기때문에 그 해결노력도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즉 미국은 消費國의 단결을 통한 產油國에 대한 壓力과  
 이것이 야의 策을 택하는 策士들도 동원할 수 있다는 가능성까지  
 暗示하면서 石油國의 引下를 유도하려하고 있다. 그러나 日本,  
 英國 등 主要消費國들은 產油國의 反발을 사게 될것을 우려하여 미  
 국의 노력에 消極的인 反應을 보이면서 개별적인 산유국 접근을  
 통한 석유문제해결을 기도하고 있다.

한편 產油國측에서는 이 기회에 장기적인 利益保障體制를 구축하  
 기 위해 一部에서는 多利亞 石油國 再引上을 策하고 있고 消費  
 國側의 석유가 인하요구에 對해서는 先進國 工業品 價格에 링크시  
 키 조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같은 消費國과 產油國間의 利害對立과 소비국간의 보조 불일  
 지로해서, 석유문제의 해결은 앞으로 상당기간 어려울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대한 石油情勢下에서 국제적인 「스태그·플레이션」 즉  
 「인플레이」와 不況은 並進하면서 심화되어 가고 있다. 석유수입부

가 主要原因이 되어 革新勢力의 진출이 현저히 증대한 反面 自民  
日本에서도 지난 7월 參議員選舉에서 「인프레」등 經濟事情惡化  
면할수 없게되었다.

에서 노조의 지지에 의해 재집권하였기 때문에 政權自體의 弱體를  
일국에서는 급격히 영향력이 커가고 있는 勞組와의 「社會契約」下  
경제적 空白수에 있다. 또한 經濟惡化로 지난 10월 總選을 치른  
일 中道左派聯隊이 방위된 이후 아직도 新政府를 구성하지 못한채  
戰後, 최대의 경제적 난국에 처해있는 伊太利에서는 지난 10월 3  
政治的 危機를 문고 왔다.

經濟事情의 惡化로 인한 社會不安은 급기야는 많은 國家에서 政  
적이가고 있다하겠다.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 마치 扶況은 1930년대의 恐慌의 양상을  
이러한 상황에서 物價高, 失業, 그리고 기아는 각국에서 社會的  
今日의 眞情이다.

는 「인프레」를 가속화시키는 政策的 「디레마」에 빠져있는 것이  
위해진 經濟재정으로 不況은 심화되고 불황을 타개키위한 經濟완화  
속출을 가져와 대량 失業을 낳고 있다. 「인프레」抑制을 위해  
政策은 「인프레」를 둔화시키기 이전에 雇業의 萎縮과 企業倒産의  
金利引上, 財政支出抑制等 緊縮政策을 강행하고 있지만 이러한 緊縮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은 「인프레」를 公敵 第1号로 삼고  
刺戟하는 惡循環을 거듭하고 있다.

鬭爭을 격화시키고 이것이 또한 임금인상을 유발하여 물가상승을  
담의 증가는 물가를 昂騰시켜 實質所得이 감소된 노동자들의 價金

당은 퇴조현상이 더욱 심화되었고 이것이 党内 派閥紛爭을 격화시켰으며 이러한 傷處가 결국 田中首相의 「金脈」문제로 끓아터져 田中政權의 退陣이 강요당하였다.

또한 美国에서도 지난 11월 5일의 中間選舉에서 共和黨이 참패하여 「포드」政權의 政策推進基盤이 決定的으로 약화되어 버렸다. 이것은 「워터게이트」事件의 後유증이기도 하지만 이에 못지않는 理由로서 「포드」政權이 현재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타개에 無力했다는 데 대한 有權者의 批判을 들수 있다.

이와같이 國際經濟事情의 惡化에서 보는 社会不安은 정치위기를 몰고 오고 사회불안과 정치위기는 革新勢力의 挑戰을 增幅시켜 곧 自由民主体制의 危機를 增大시키고 있다.

#### 나. 韓國統一에 作用할 國際的 諸變數要因

이상과 같은 國際的인 安保, 外交, 經濟情勢는 바로 韓國의 統一問題에 諸變數要因으로 作用하는 것이다.

現今の 國際情勢는 概括적으로 말해서 韓半島에서의 戰爭抑制力을 弱화시키고 있음은 물론 友邦諸國의 對韓支援環境을 흐리게하고 우리의 經濟的 与件마저 惡化시켜가고 있다.

要컨데 安保面에서는 強大國의 危機管理能力이 低下하고 先挑發 後協商式의 局地戰은 擴散될 가능성이 농후하며 그런가 하면 北廳挑發可能性에 대한 中·蘇의 牽制力은 弱化되어 가고 있는데도 美國은 駐韓美軍의 감축을 의도한 對韓防衛戰略 再編成을 추진하고 있어 韓半島에서의 戰爭抑制 努力에는 큰 虛點이 노정될 危險性이

있다.

특히 우리가 注目해야 할 것은 中共에서 만약 毛沢東이나 周恩來가 死亡할 경우 江青·王洪文등 強硬派들이 집권한다면 이들은 國際政治感覺의 미숙으로 강경한 原則論만 내세워 盲目的으로 北傀를 支援할 우려마저 없지않는 點이다.

世界外交面에서도 大國間의 湧起外交風潮는 美·日·中·소등 4大 強國間에서 韓半島問題를 우리의 意思와는 關係없는 方向에서 그 해결을 모색할 가능성을 제고시키고 있으며 友邦諸國의 共產圈接近 努力은 友邦諸國의 反共意識을 분하시켜 一萬의인 對北傀接近風潮를 가져오고 있다.

또한 第3世界의 集團的 過激化 경향은 當면한 UN總會에서 그 만큼 우리의 立場을 惡化시키는 要因이 되고 있어 이제 우리 政治를 수립하는데 大대한 역할을 수행했고 6.25南侵을 저지해주었던 UN에게 더 以上 우리의 統一問題를 依存할수 없다는 脫UN을 주장하게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또한 國際經濟面에서도 石油를 비롯한 各種 資源의 高價時代가 도래하여 保護貿易이 일반화하고 국제경제사정의 惡化로 인한 各國의 社會的 不安이 高潮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不可避하게 經濟危機의식이 증대해가고 있고 이에따라 社會不安要因도 增幅됨으로써 北傀의 對南赤化야욕을 부채질해주는 하나의 要因이 될 危險性도 있다.

이와같이 石油危機가 초래한 세계정치경제상의 새로운 挑發要因이 너무나 충격적이고 심각하게 그 影響을 확산, 파급시키고 있기때문

統一問題가 定立될수 있는 方向이 提示되고 있다고 할수 있겠다. 의 基本的 決定要因으로 作用하고 있기 때문에 이점에서도 우리의 制度의 發展으로 期待해보려는 現狀固定化的인 努力이 국제적에 발전 國際情勢의 底流에는 아직도 冷戰時代에서 完全 腐敗하의 건장완화 一切 不利한 諸變數要因으로 등장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따라서 韓國統一의 영향을 미치는 國際情勢의 發展趨勢는 우리의 것이다.

力量強化」를 기할수 있는 決定的 狀況이라고 믿을때 武力欺行할 定的 時期」와 관련시켜 「國際的 革命力量強化」와 「南韓內 革命 北滿은 우리의 對內的인 與作態化를 그들이 말하는 이른바 「決 是 방향으로 政界가 발전하고 있음은 의미한다.

상해가고 있다. 이러한 狀況은 바로 北權의 誤判을 招來할수 있 國運은 瞬間的으로 회생할수도 있는 極히 危險스러운 狀況을 초 界的인 混亂期에 접어들고 있다. 이 때문에 우리의 對小國의 國際社會가 중대 冷戰構造와는 다른 양상으로 다각적이고 汎世

### 3. 展 望

國際情勢의 發展趨勢가 韓國統一에 미칠 影響을 展望하는데는 지난 11월 「포드」大統領의 極東巡訪外交結果를 빼놓을수 없다.

「포드」大統領의 極東巡訪外交는 예상했던것보다 순조로왔고 國際協力を 통한 아시아의 새로운 秩序形成이라는 긴장완화의 制度化과정에 큰 의미를 댈것이었다.

美國의 新大統領이 緊張緩和時代의 긴장지역인 極東을 순방하는 것만에 의의가 주어졌던 것이 당초의 展望이었지만 「포드」外交는 美·日·蘇 그리고 中共까지 묶은 4強의 이지역에 대한 政策再點檢을 물고오게 했다.

그런 의미에서 4強에 끼어있는 韓半島情勢는 금후 커다란 변화의 징조를 예감해야 할 것이다.

美國은 기본적으로 韓國과 日本과의 이 地域에 있어서의 同盟關係를 재확인하면서 對蘇·對中共和解政策을 전제로한 對아시아政策을 점검했다. 「포드」外交의 對韓半島政策의 구체적 「카드」는 나오지 않았지만 美·日, 美·蘇頂上會談과 「키신저」의 中共訪問에서 깊숙히 이 문제가 거론되었을 可能性은 크다.

「포드」大統領은 日本에서 「韓國의 安保는 日本뿐만아니라 아시아의 安保에 極히 중요하다」는 말을 남겼다. 물론 이는 美國의 종래의 情勢觀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은 冷戰에서 和解로 넘어가는 極東의 力關係, 力構造에서 韓半島의 중요성을 인식한 대목이고 韓半島문제는 아직도 「밸런스」유지가 절대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말로 받아들여야 한다.

「하비브」美國務次官補는 「蘇·中共이 韓國을 승인하면 美國도 北傀를 승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포드」의 訪日 직후 韓蘇訪問 직전에 나온 이같은 발언은 많은 示唆을 주고있다.

田中日本首相이 「포드」大統領에게 日本의 情勢觀을 개진할때도 「韓半島의 安保가 日本의 安保에 重要하다」는 木村外相의 중대 發言을 뒷받침 한것도 역시 중요하다.

英國의 「선데이·타임즈」는 「블라디보스톡」會談뒤 소련이 韓國을, 美國이 北傀를 곧 승인하게 될것으로 보인다고 하는 記事를 게재했다.

朴大統領이 6.23 宣稱에서 이미 이 「相互承認」을 제창한바 있어 이번 「포드」大統領의 極東巡訪結果 이와같은 劇的인 狀況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可能性은 충분히 있다 하겠다.

要컨데 韓半島는 長期的으로 본다면 民族의 悲願인 統一에의 道程으로 계속 前進해 갈 것이나 現實 國際情勢는 東西兩獨과 같이 分斷國으로서 現狀이 固定化되어 가는 傾向이 뚜렷하다.

따라서 當분간 南北이 分斷된 상태에서 世界情勢의 進運에 부응하여 平和共存에의 志向을 해갈 것이지만 그 道程은 결코 平坦하지 않을 것이며 狀況에 따라서는 緊張狀態가 고조될 가능성도 있고 紛爭이 生起할 危險性마저 없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경과를 겪는다 할지라도 統一問題는 우리 民族 스스로가 解決해야 하며 여타 국가는 이에 協力해야하는 것이 道理라는 것은 말할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實際問題로서는 大國이 自己

利益에 기초하여 韓半島의 統一問題에 強力히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 불가피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民族의 悲劇일수 밖에 없는 상태로 整理될 경우도 없지않을 것이다.

強大國의 可能한 行動方案 강구에 우리의 利益이 어느정도로 反映시킬수 있을 것인가가 우리에게 맡겨진 重要大한 課題라 하겠다.



1. 「朴」 - 「포드」 共同声明全文 1974. 11. 22

朴正熙 大韓民國 大統領閣下の 招請으로 「제럴드·R·포드」 美合衆國 大統領閣下는 現國勢情勢에 因하여 意見을 交換하고 兩國의 共同利益과 關心事에 因하여 討議하기 爲하여 1974年 11月 22日과 23日 大韓民國을 訪問하였다.

訪問中 兩國大統領은 2次의 會談을 가졌으며 金鐘泌 國務總利, 「해리·키신저」 美國務長官, 金東諱 外務部長官, 金正廉 大統領 秘書室長, 「리처드·L·스나이디」 駐韓美大使, 成秉春 駐美韓國大使와 其他 兩政府 高位 官吏들이 參席하였다. 「포드」 大統領은 또한 韓國에 駐屯하고 있는 美軍을 訪問하였다.

「포드」 大統領은 顯忠塔에 獻花하고 朴正熙 大統領 令夫人 故陸英修 女史의 墓所를 參拜하였으며 朴 大統領에게 同令夫人의 悲劇的이며 不시의 逝去에 對하여 惻然 深甚한 弔意를 表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大韓民國과 美合衆國의 強固 友好와 協力の 紐帶를 再確認하고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關係를 特徵 짓고있는 安保問題 및 其他 相互 利益에 因한 諸般事項에 對하여 緊密한 協力과 定期的인 協議를 繼續해나갈것에 合意하였다.

兩大統領은 最近 數年間 亞細亞情勢에 있어, 政治的, 經濟的으로 相當한 變化가 있었음에 注目하고 이 地域의 盟邦들이 보다 強力해지고 繁榮해가고 있으며 또한 그들 自体의 安保는 勿論 이 地球 全體의 安保를 爲하여 繼續 많은 寄與를 하고 있음을 認定하

였다.

「포드」大統領은 美合衆국이 太平洋 國家로서 亞細亞·太平洋地域에 至大한 利害關係를 갖고있으며 이 地域의 平和와 安全을 確保하기 爲하여 最善의 努力을 繼續할것임을 明白히 하였다.

朴 大統領은 그와같은 目的을 指向하는 美國政府에 對하여 理解와 全幅的인 支持를 表明하였다.

朴 大統領은 韓半島의 緊張을 緩和하고 平和를 定着시킴으로써 窮極的으로는 韓國의 平和的 統一을 期할 目的으로 北韓과의 對話를 維持하기 爲하여 大韓民國이 其間 傾注하여온 諸般努力에 關하여 說明하였다.

朴 大統領은 北韓當局의 이제까지의 無誠意한 態度에도 不拘하고 大韓民國은 對話를 繼續 追求할 意向임을 確認하였다.

「포드」大統領은 美合衆국이 大韓民國의 그와같은 諸般努力을 繼續 支持할것임을 確約하였으며, 大韓民國의 建設的인 「이니셔티브」가 關心있는 모든나라들로부터 肯定的인 呼応을 받으리라는 希望을 表明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現國際聯合 總會의 韓國問題 討議에 關하여 意見을 交換하고 美國 및 余他 友邦들이 提出한 決議案에 對하여 總會가 好意的인 措置를 取하는것이 重要하다는데 合意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國際聯合總會가 過去 20 余年間 韓半島에서 平和를 維持하여온 安保體制의 重要性을 認定하고 그基礎위에서 韓國問題를 討議하여야 할것이라는 希望을 表明하였다.

朴大統領은 韓半島情勢에 對하여 詳細히 說明하였으며, 特히 最近

非武装地帶 南쪽까지 構築된 地下「터널」의 例에서도 보는바와같이 北韓의 敵對行爲로 因한 平和와 安定에 對한 威脅을 說明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大韓民國軍과 駐韓 美軍이 侵略을 抑制하기 爲하여 高度의 戰力과 準備態勢를 維持하여야 한다는데 合意하였다.

「포드」大統領은 1954年의 大韓民國과 美合衆國間의 相互防衛條約에 依拠, 大韓民國에 對한 武力攻撃을 擧退하기 爲하여 即刻的이고 効果적인 援助를 提供하겠다는 美合衆國의 決議를 再確認하였다.

이와 關聯하여 「포드」大統領은 朴大統領에게 美國은 現水準의 駐韓 美軍을 減縮할 아무런 計劃도 없음을 確約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大韓民國軍의 現代化 計劃의 進歩 狀況을 檢討하고 同計劃의 履行이 大韓民國의 安全과 韓半島의 平和를 爲해 極히 重要하다는데 合意하였다.

「포드」大統領은 大韓民國이 相當할 能力과 意思를 가진 防衛 分担의 幅이 增大되고 있음에 留意하고 大韓民國의 防衛産業을 더욱 發展시키기 爲하여 美合衆國이 適切한 支援을 繼續할 用意가 있음을 確認하였다.

「포드」大統領은 充分한 賦存天然資源의 不足및 이 地域에 있어서의 繼續적인 緊張등 許多한 難關에도 不拘하고 大韓民國이 이룩한 急速하고도 持續적인 經濟發展을 讚揚하였다.

朴大統領은 韓國의 經濟 科學및 技術分野의 發展에 있어서의 美合衆國의 寄與에 對하여 謝意를 表하였다.

兩國 大統領은 最近의 國際經濟 變動이 가져온 影響을 檢討하였다.

兩大統領은 이 訪問이 相互-便利한 時期에 이우어질 것의 合意하였다.  
게 招請하였으며 朴大統領은 이 招請을 기꺼이 受諾하였다.

「포드」大統領은 朴大統領에게 美合衆國을 訪問하여 우도부 鄭鍾하  
에 깊은 謝意를 表明하였다.

베를린은 따뜻한 款待와 厚意에 對하여 朴大統領과 大韓民國 國民  
「포드」大統領은 그의 一行과 美國 國民을 代身하여 訪韓期間中  
하였다.

爲한 「포드」大統領의 積極 努力에 對하여 큰 期許와 敬意를 表  
朴大統領은 世界 平和를 確立하고 世界 經濟 秩序를 回復하기

冠兒을 같이 하였다.  
된 供給을 實現하기 爲하여 國際的 努力을 集中시켜야 한다는의

障하기 爲한 任務을 確立하며, 適正價格에 依한 「에너지」의 安定  
또한 交易上의 諸般障礙要因을 減少시키고 安定된 食糧供給을 保

다는데 合意하였다.  
그들은 英國 및 其他 外國의 繼續的인 對韓民間投資가 바람직하

로 繼續 增進해 온데 對하여 서로 滿足을 表明하였다.  
兩大統領은 兩國에 對하여 有益한 變務的인 經濟關係가 實質的으로

調整의 必要性에 對하여 見解를 같이 하였다.  
그들은 國際社會가 直面하고 있는 새로운 問題들에 對한 政策

가야 한다는데 合意하였다.  
한다는 精神에 立脚하여 各其他方面에 對한 經濟 政策을 이끌어 나

增進하여야 하며 韓·美兩國은 모든 國家들이 더욱 緊密히 相扶해야  
그들은 兩國이 相互 利益을 爲하여 緊密한 經濟 協力을 繼續

2. 「포드」- 田中 共同聲明全文 1974.11.20

I

美合衆國의 「포드」大統領은 日本國政府의 招待에 依해 11月18일부터 22일까지의 日程으로 日本을 公式訪問하였다. 「포드」大統領은 11月19日 皇居에서 天皇・皇后 兩陛下와 會見하였다.

II

田中總理大臣과 「포드」大統領은 11月19日 및 20日에 行한 會談에 있어서 美・日 兩國間의 將來關係의 推進가 甚 大음과 같은 共通의 目的에 關하여 意見의 一致를 보았다.

1. 日本과 美國은 많은 政治的 經濟的 利害를 같이 하는 太平洋國 家로서 平等의 原則에 立脚한 緊密, 互惠의 關係를 發展시켜왔다. 兩國間의 友好와 協力を 加人的 目的의 爲한 人權을 尊重하 는 政治體制 및 創造性을 爲한 機會의 國民의 福祉를 確保할 可能性을 備하는 市場經濟體制을 維持해 來 共通의 決意에 立脚 하고 있다.

2. 日本과 美國은 國際聯合體章의 原則을 目的과 原則을 反映한 平和維持의 安定的인 國際秩序의 形成을 念頭하면서 「아시아」 太平洋地域에 있어서 何인 關係가 있는 當事者間의 諸懸案의 平和的인 解決을 容易하게 하고, 國際緊張을 緩和하며 開發途上國의 持續的이고 秩序있는 成長을 促進하고 또한 同地域의 諸國間의 建設的 關係를 助長하는 條件의 釀成을 繼續 促進한다.

美·日兩國은 各各 스스로의 責任과 能力에 비추어 이 課題에 貢獻한다.

兩國은 相互協力 및 安全保障條約下의 美·日間의 協力關係는 「아시아」에 있어서의 國際情勢의 進展속에 있고 重要하고 永続하는 要素를 構成하고 있으며 또한 同地域의 平和와 安定을 促進하기 爲해 效果的이고 意義있는 役割을 繼續 遂行해 갈 것으로 생각한다.

3. 日本과 美國은 모든 國家가 加一層의 軍備制限 및 軍備減縮措置 特히 核軍備 管理를 推進하기 爲하여 또한 平和目的의 核 「에너지」의 利用增加를 容易케 하면서 核兵器 其他 核爆發裝置의 加一層의 擴散을 防止하기 爲하여 眞摯한 努力을 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兩國은 이러한 努力에 關해서 모든 核兵器 保有 國家가 高度의 責任이 있다고 하는 것을 強調하고 核兵器 非保有 國을 核威脅으로부터 지키는 것이 重要하다고 생각한다.

4. 日本과 美國은 兩國의 相互依存關係가 顯著하게 広範한 分野에 까지 미칠 것과 國際社會가 直面한 새로운 諸問題에 對해 協調하여 対処할 必要가 있다고 생각한다.

兩國은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諸國과의 對話와 交流를 通하여 世界에 있어서의 加一層의 緊張緩和를 助長하기 爲해 着實한 努力을 거듭하며, 先進工業民主主義諸國間의 緊密한 協力을 促進하기 爲한 努力을 強化한다.

5. 모든 國家間에 깊어가고 있는 相互依存 關係와 現在의 世界的

인 經濟困難으로 비추어 보아 國際間의 經濟面에서의 協力の 強化가 점점 더 重要하게 되고 있다.

日本과, 美國은 主要한 經濟問題 解決을 爲하여 兩國의 人的 物的 能力을 建設的으로 活用함이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開放되고 調和된 世界經濟 體制를 構築하는것은 國際의 平和와 繁榮을 爲하여 不可欠하며 兩國의 基本目標다.

日本과 美國은 이 目的을 爲하여 兩國間의 緊密한 貿易關係를 今後로도 發展시킴과, 同時에 關稅및 其他 貿易障害를 輕減시키기 爲한 交渉을 通하여 世界貿易의 繼續된 擴大를 確保하고 安定되고 均衡있는 國際金融秩序를 創設하기 爲한 國際的인 努力에 建設的으로 參加한다.

兩國은 他國의 經濟에 좋지않은 影響을 주는 行動은 삼가 한다는 兩國의 國際的인 義務을 繼續 遵守한다.

6. 日本과 美國은 世界 資源의 보다 効率的이고 合理的인 利用과 分配가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兩國은 「에너지」의 妥當한 價格으로서의 安定的인 供給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各 經濟에 適合한 方法으로 「에너지」供給을 擴大하고 分散하여 새로운 「에너지」源을 開發하고 制限된 燃料의 利用에 맞는 節約을 推進하는데 努力한다.

兩國은 消費國間의 協力を 推進하는것을 重要視하고 余他諸國과 協調하여 生産國과의 사이의 調和를 이룬 關係를 追求해 갈 意向이다.

兩國은 經濟 및 金融上의 危機를 事前에 回避하고 創造性과 共通의 進歩라는 새로운 時代를 가져오기 爲해 加一層의 國際協力의 努力이 必要함에 合意한다. 兩國은 世界 食糧供給의 確保를 爲한 國際的 의무를 마련할 必要性을 認識하고 農業分野에 對한 開發途上國에 對한 援助를 強化하고 農産物 供給狀況을 改善하고 適切한 食糧儲蓄水準을 確保하는 方途를 探求하기 爲한 多數國의 努力에 建設的으로 參加한다.

兩國은 食糧 生産國과 消費國의 協력이 食糧不足 狀態에 對處하는에 必要하다고 생각한다.

7. 世界人類의 福祉를 爲해서는 開發途上國의 技術的 및 經濟的 能力의 著實한 改善이 모든 國家의 共通의 關心事가 하나어서는 안된다.

日本과 美國은 開發途上國, 特別 重要한 天然資源을 갖지않은 諸國에 對한 援助의 重要性을 認識하고 特別的으로 그리고 그밖의 다른 依統的 援助國과 새로이 援助能力을 갖게된 諸國의 參加와 支持를 얻어 이들 開發途上國이 堅實하고 秩序있는 成長을 達成하도록 努力하는데 이어 援助 및 貿易을 通한 協力計劃을 維持 擴大시킨다.

8. 日本과 美國은 自然環境을 保全하고 또한 宇宙 海洋等 새로운 開發分野를 開拓토록 努力함에 對應하여 人類에 共通된 多數의 새로운 課題에 直面하고 있다.

兩國은 널터 余他 諸國과 協力하여 現代社會의 必要에 答하고



生活의 實을 向上시키고 또 보다 均衡있는 經濟成長을 達成하기  
爲한 努力을 行함에 즈음하여 科學 技術 및 環境保全等의 分野  
에서의 研究을 促進하고 情報 交換을 促進한다.

9. 日本과 美國은 永続하는 友好關係가 國民生活의 各層 各面에서  
의 兩國民間의 相互利益의 不斷한 發展과 意思疎通의 強化에 立  
脚해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兩國은 이와같은 利便을 涵養하고 그 增大에 바탕이  
될 文化 및 教育 交換을 加一倍 發展시키도록 努力한다.

10. 日本과 美國은 友好와 相互信賴의 精神을 가지고 充分히 서로  
通報하고 또 兩國間의 爭點이 發生 할 수 있는 問題 및 兩國이 共通  
關心을 갖는 緊急한 世界的 問題에 對해서의 주의라고 時宜適切  
한 協議를 한다고 하는 實行을 強力히 決意한다.

11. 美·日 兩國의 友好協力關係는 人間活動의 諸分野에서 多年間  
成長시키고 深化시켜 오고 있다. 兩國은 이를 多様な 關係는  
全體로서 兩國 各各의 外交政策의 立脚하는 主要한 基礎를 이루  
는 同時에 安定된 國際政治, 經濟發展을 지명하는 不可欠의 要素  
가 되고 있음을 再認識한다.

### III

○. 現任 美合衆國 大統領에 依한 最初의 日本에 訪問은 兩國間의  
親善의 歷史에 새로운 한 「페이지」를 追加하는 것이다.

1. 雙方은 核戰爭의 防止와 戰略武器制限에 對해 美蘇兩國에서

對해서였다.

있었다. 卽 戰爭의 危殆을 除去하고 軍備競爭을 停止하는 手段에

1. 이 會議에서 美蘇關係의 主軸이 되는 面에 特別한 考慮가

格 完全하게 遂行하는 相互의 決意을 表明했다.

1. 雙方은 兩國의 締結한 系約, 協定에 따라, 相互의 義務을 嚴

하는 作業은 間斷없이 繼續하고 進行시킬수 없는 것이 될 것이다.

擴大해 나갈 意向이다. 이에 依據하여 美國과 蘇聯의 關係를 改善

分野에서 協力關係의 增進과 強化에 있어, 彈力을 喪失하지 않고

1. 따라서 雙方은 現在까지 雙方의 副印한 諸協定에 規定된 全

形成의 進展을 가지는 데 確固한 基礎이다.

重要한 成果를 獲得했다고 思慮한다. 이 등의 成果는 美蘇關係 再

符한 安全保障을 基礎로 하는 美蘇關係를, 根本的으로 再形成하는데

1. 雙方은 兩國間에서 達成한 合意의 基礎를 固, 平和共存과 平

있어서, 死活의 關係되는 利益과 合致한다는 것을 確信한다.

大하는 것을 目標로 하는 美蘇의 路線이 兩國民과 衆價의 蘇國民에

의 深化, 社會體制를 달리하는 諸國間의 있어서 互惠의 協力を 提

의 決意을 再確認 했다. 兩國은 世界平和의 強化, 國際緊張 緩和

協定에 依據 規定한 方向에 따라, 兩國關係를 今後 發展시킬 兩國

1. 美蘇兩國은 近年 兩國間에 締結한 共同의 決定, 基本的 系約,

3. 「포드」 - 「브레즈네프」 共同聲明全文 1974.11.24

## 達成한 合意

가. 核紛爭 및 戰爭 全般의 爆發 防止를 爲해 保障을 創造하는 것으로 좋은 始作이 된다는 것을 再確認한다. 雙方은 이 過程을 推進시킬 必要性이 있다는 깊은 信念을 表明하고, 余他國도 이에 貢獻할수 있도록 希望한다. 美蘇兩國으로서는, 이 歷史的 任務을 達成하기 爲해, 活潑한 努力을 繼續할 것이다.

1. 攻擊用 戰略武器의 制限에 關한 共同聲明은 別途로 公表된다.

1. 雙方은 世界的인 核武器의 擴散에 隨伴하는 危險의 防止를 目標로 한 眞實한 努力의 重要性, 必要性을 새로이 強調했다. 이에 關聯하여 雙方은, 核武器 擴散防止條約의 有効性을 높이는 重要性을 強調한다.

1. 美蘇兩國의 代表들은 既 合意된 諸協定에 基礎를 두고, 平和 利用 目的인 地下 核爆發, 軍事目的을 爲한 環境變化技術의 使用이 惹起시키는 危險의 克服方法, 또한 더욱 危險한 致死的 化學戰 手段에 關聯되는 諸措置等 問題에 對해, 初期의 接觸이 開始되었다는 것이 留意되었다. 이 등의 諸問題에 對해 相互間 承諾 可能한 解決 方法을 摸索하기 爲해 活潑한 研究을 繼續하기를 合意한다.

1. 會談 過程에 있어서, 많은 國際問題에 關하여 意見交換이 實行되었다. 特히 兩國이 參加한 가운데, 現存하는 緊張의 原因 除去와 國際的인 安全保障, 世界平和強化의 具現을 目標로 既 進發하고 있는 交渉에, 特別한 注意가 傾注되었다.

1. 雙方은 歐洲安保協力會議의 現狀을 檢討한 結果, 同會議가 早

期에 成功하고 完結할 可能性이 있다는 結論에 到達하고, 會議의 過程에서 達成한 成果는, 首腦級에서 終幕을 裝飾하며, 歐洲의 平和 스테운 將來를 保障하는 重要性에 相応한 結果가 될 것이 予想된다.

1. 美蘇兩國은 中東歐州에서의 相互兵力과 軍備의 削減交渉, 이에 關聯하는 手段에 對하여, 높은 重要性을 認定하고있다. 兩國은 모든 當事國에 있어서 安全保障을 低下시키지 않으며, 또한 一方的으로 軍事的 優位 確保를 防止하는 原則에 立脚하여, 相互 받아드리기 可能한 解決方法 探究에 積極적으로 行動할 것을 合意한다.

1. 東地中海에 存在하는 情勢에 對하여 雙方은 「키프로스」의 獨立, 主權, 領土保全을 確固히 支持함과 同時에, 이 方針에 따라 모든 努力을 할 것을 聲明한다. 雙方은 「키프로스」問題의 公정한 解決은, 「유엔」安條公約과 總회가 採択한 「키프로스」에 關한 決議의 嚴格한 適用에 基礎를 두지 않으면 안된다고 思想한다.

1. 中東에 對해 意見을 交換하는 過程에 있어서 雙方은, 同地域에서의 危險한 情勢에 關聯하여 憂慮를 表明했다. 同地域에 있어서, 「유엔」決議 338 號에 結論을 든 公正하고 永続적인 平和를 確立할 것이라고 하는, 重要한 問題의 解決을 促進하기 爲해, 雙方이 共に 모든 努力을 傾注할 意圖를 再確認하였다.

1. 雙方은 中東에 있어서 公正하고 永続적인 平和를 確立하기 爲해 「제네바」會議이 重要한 役割을 遂行해야 하면, 同會議이 可及的 速히 再開 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1. 美蘇兩國間의 貿易, 經濟, 科學, 技術面에 對한 連關性에 對한

現狀도 再檢討하였다. 雙方은 此等의 分野에 있어서 今층의 進展이 美蘇關係에 미치는 意義의 重大性을 確認하고, 相互間에 利益을 가져오는 協力關係를 繼續 擴大, 深化시킬 같은 意思를 表明한다.

1. 雙方은 互惠的인 大規模 「프로젝트」를 包含하는 貿易 및 經濟協力を 長期的 基礎 위에서 發展시킬 것이 가지는 特別한 意義를 強調하였다. 雙方은 此러한 貿易, 經濟協力이, 美蘇關係의 安定 및 增加에 必要로 하는 것으로 믿는다.

1. 雙方은 諸協定의 履行과 科學, 技術, 文化의 各分野에서 美蘇間의 紐帶와 協力에 依한 發展으로 前途가 있었다는 點을 滿足하게 評價했다. 雙方은 此런 諸分野의 協力關係가 繼續 擴大하는 것이 兩國民의 利益이 되며, 世界的規模의 科學, 技術問題 解決에 重要한 貢獻이 된다고 確信한다.

1. 會談은 美蘇間의 平和的인 友好關係를 強化, 發展시키고, 또한 平和를 擁護, 強化하기 爲期, 未解決한 國際的인 諸問題 解決을 促進코져 하는 雙方의 建設的인 意圖를 反映하여 相互 率直하고 理解할 수 있는 다양한 場面 및 場에서 行하였다.

1. 會談 結果는 美蘇間의 經濟協력이 實質的인 効用과, 새로운 美蘇關係 形成에 있어서 이것이 通行하게 하는 役割과 그 大端한 重要性을 完全히 證明했다.

1. 「포드」美大統領은, 「브레즈네프」書記長에 對한 1975年夏 公式 美國 訪問招請을 再確認한다. 訪問에 對한 正確한 日程을 追後에 合意한다.

